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경 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가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임 서 연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가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강 경 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임 서 연

인 준 서

임서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5월

심사위원장 박 정 미 (인)

심 사 위 원 배 미 현 (인)

심 사 위 원 강 경 선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중국 결혼이주 여성의 우울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G구에 소재한 D센터에 출석 중인 중국 결혼이주여성 14명으로 이들은 실험집단 7명, 통제집단 7명으로 무선 배치되었다. 음악치료는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2018년 2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각 회기 당 120분씩 주 1회, 총 10회기 진행되었다.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우울 척도 및 대인관계 척도 검사를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Mann-Whitney U 검정과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Mann-Whitney U 검정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간 비교에서 우울과 대인관계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p < .01$)가 있었다. 대인관계 하위요인 중 점수로는 의사소통, 신뢰감, 개방성, 이해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s < .05$)가 있었고 친근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p < .01$)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만족감과 민감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s > .05$)를 보이지 않았다. Wilcoxon Matched Pair 검정결과, 실험집단의 우울은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며 낮아졌고, 대인관계는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며 높아졌다. 대인관계 하위요인 점수에서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개방성, 이해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ps < .05$)를 보였고 친근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p < .01$)를 보였으나 민감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통제집단은 우울과 대인관계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ps > .05$)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대인관계에 효과적인 증재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II. 이론적 배경	7
1. 결혼이주여성	7
1) 결혼이주여성의 정의 및 현황	7
2) 중국 결혼이주여성	8
3) 결혼이주여성 심리적 특성	10
(1)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10
(2) 결혼이주여성의 대인관계	12
2.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14
1) 치료적 도구로서의 타악기	14
2) 집단 음악치료	15
3) 우울 감소와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17
III. 연구 방법	20
1. 연구 대상	20
2. 측정 도구	20
1) 우울 척도	20
2) 대인관계 척도	21

3. 연구 설계	21
4. 연구 절차	22
1) 사전 검사	22
2) 사후 검사	22
3) 프로그램 절차	23
5.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	24
1) 음악치료 프로그램 단계별 목표	24
2) 음악치료 프로그램 각 회기별 활동내용	25
6. 자료 분석	34
IV. 연구 결과	35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5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 검증	36
3. 우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37
1) 우울 전체점수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37
4. 대인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39
1) 대인관계 전체점수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39
2) 대인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41
V. 결론	47
1. 결론 및 논의	47
2. 제언	49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III-1> 대인관계 척도의 문항 구성	21
<표 III-2> 연구 설계	22
<표 III-3> 프로그램 한 회기 구성	23
<표 III-4>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구성	24
<표 III-5> 각 음악치료 활동 내용 및 치료적 논거	28
<표 III-6> 각 회기별 사용 노래 및 치료적 논거	31
<표 IV-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5
<표 IV-2> 연구대상자의 나이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36
<표 IV-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분석	37
<표 IV-4> 우울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38
<표 IV-5> 우울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39
<표 IV-6> 대인관계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40
<표 IV-7> 대인관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40
<표 IV-8> 대인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42
<표 IV-9> 대인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43

그림 목 차

<그림 IV-1> 우울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39
<그림 IV-2> 대인관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41
<그림 IV-3> 만족감	43
<그림 IV-4> 의사소통	44
<그림 IV-5> 신뢰감	44
<그림 IV-6> 친근감	45
<그림 IV-7> 민감성	45
<그림 IV-8> 개방성	46
<그림 IV-9> 이해성	46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는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한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2018년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은 4.5%(237만 명)로 2008년 2.3%(116만 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을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 또는 국제결혼을 통한 인구이다(권구영, 박근우 2007). 특히, 국제결혼이 증가한 원인은 1980년대 후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남·여간 성비 불균형, 독신 여성과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종교적인 이유 등이 있다(김은정, 조미영, 황지윤, 2015). 국제결혼이 보편화됨에 따라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이민자 인구의 82.7%(231,474명)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8). 이제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결혼이주여성을 만나는 것은 평범한 일이 되었다(천호성, 박계숙, 2012).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남성과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입국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결혼 후 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문화적 충격과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다(강기정, 변미희, 2010). 결혼이주여성은 가사 부담, 자녀 양육, 체류 자격에 대한 불안정, 차별,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이혜경, 전체인, 2013).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와 결혼이라는 이중적 상황, 경제적 어려움, 지원체계 부족에서 오는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환경은 결혼이주여성의 소외감,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 정체성 혼

란 및 사회적 부적응을 더 심화시킨다(임혁, 2010; 장덕희, 이경은, 2010). 임정미(2010)는 사회,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적응의 문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은 결혼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주된 문제로 보고 있다.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결혼이민자·귀화자들의 35.9%가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7.4%는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우울감을 느낀다고 한다. 세부 집단별로는 가구 소득·교육 수준이 낮고, 동남아 국가 출신인 결혼이주여성이 더 높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8). 높은 우울감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와 부부관계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인관계와도 연관성이 있다(권석만, 1995). 박경(2003)은 우울과 대인관계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우울에 취약할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박송이, 채규만, 2012). 상호작용의 어려움과 결핍된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박민향, 정계현, 2018).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실패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생활에 불만족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이다(김동수, 정태연, 박준성, 김현정 2008). 또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개인, 가정, 사회 부적응으로 상담을 신청한 결혼이주여성의 대다수가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최양님, 2015). 결혼이주여성의 대인관계는 한국 생활의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친밀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결혼이주여성의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제한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정과 사회에서의 정서적 지지 체계 부족, 이웃과 낮은 교류 및 상호지원 등이 있다(김정혜, 2009). 대인관계에서 지속된 거절, 갈등, 조롱, 무심함, 비난 등의 경험은(최정원, 임정하, 2018; Edwards, Hershberger, Russell & Markert, 2001; Ruehlman & Karoly, 1991) 스트레스를 유발하고(Berry & Worthington, 2001; Newsom, Nishishiba, Morgan & Rook, 2003),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을 하게 한다(권성혜, 2006; 단문경, 2017). 부적응적 대인관계로 인해 혼란을 경험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결혼이주여성은 결국 대인관계를 회피하기도 한다(김혁곤, 1992; 권석만, 1995).

낮선 환경, 새로운 가족과 사회, 문화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의 신체·정신건강은 약화되기 쉽다. 정기선(2008)은 이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대처하고 있다. 이들은 상담현장에서 법률적인 문제나 체류권에 관련된 정보만 요구할 뿐, 정서적 영역에 상담은 꺼려하는 상황이다(설동훈, 윤홍식, 2005).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일반상담현장에서 언어적 한계로 인해 심리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 아닌 우리의 가족 또는 이웃의 아내이자 며느리,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방면으로 가정에서 들뜸의 역할을 하는 여성은 자신과 가족 구성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신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조원섭, 유승현, 2017).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언어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며, 심리적 개입이 가능한 중재가 필요하다.

음악은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소통의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다(Merriam, 1964). 동시에 음악은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즐거움을 제공한다(Gaston, 1968). 이러한 음악의 장점은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접근을 함에 있어 친근한 도구로써 적합하다. 타악기를 사용한 중재는 자신만의 리듬 패턴을 연주하면서 타인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의 리듬을 모방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지지받는 경험을 통해 수용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돕는다(김경민, 2015)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음악치료는 한국에서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가지기 어려워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결혼이주여성에게 공감과 수용, 그리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회는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의 신체, 정서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이민희, 2009). 언어적, 비언어적인 소통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출하도록 하는 집단 음악치료는 결혼이주여성의 불안한 심리 및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다(권오연, 1992). 김지혜(2009)는 이러한 치료적 과정이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연습하게 하여, 음악치료 환경 외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미화(2010)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위한 중재로써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고, 김지현(2011)은 민요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음악치료를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오선화, 김은영, 정진아, 전정민, 남민 2016), 자기표현능력 향상을(이혜경, 2013) 입증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대상이 대부분 쉼터나 가정폭력 결혼이주여성들로 한정되어 있으며, 김지현(2011)의 연구를 제외한 선행연구 중재로는 노래 심리치료가 사용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타악기 중재 방법을 유일하게 사용한 김지현(2011) 연구가 있으나 민요라는 한가지의 장르만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악기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를 중재로 하여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가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타악기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에 참가한 실험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우울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 타악기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에 참가한 실험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대인관계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1) 타악기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에 참가한 실험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만족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2) 타악기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에 참가한 실험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3) 타악기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에 참가한 실험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신뢰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4) 타악기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에 참가한 실험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친근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5) 타악기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에 참가한 실험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민감성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6) 타악기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에 참가한 실험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개방성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7) 타악기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에 참가한 실험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이해성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결혼이주여성

1) 결혼이주여성의 정의 및 현황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란 국제결혼을 통하여 본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하여 사는 사람을 말한다(국립국어원, 2020). 이 명칭은 다문화 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왔다.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생활법령정보, 2020).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거나,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모두를 지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모두 포함한다(여성가족부, 2018).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자는 다문화 가구로 분류된다. 다문화 가구의 유형으로는 결혼이민자와 기타 귀화자가 있다. 이 중 결혼이민자는 85.2%로 대부분의 다문화 가구가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정임을 알 수 있다. 최근 결혼이민자는 2018년을 기준으로 3년간 평균 1.6%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중 여성의 비율은 82.7%로 결혼이민자의 대다수가 결혼이주여성이다(여성가족부, 2018).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에 발을 내디딤과 동시에

새롭게 가정을 꾸리게 되어 일시에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준비는 미흡하다.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을 하고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어야 4-5개월 정도로(이삼식, 박종서, 김필숙, 김형석 2007), 한국 문화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하거나 적응할 시간이 없고,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도 받지 못한 채 한국 사회에 편입하게 된다(서혁, 2007).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의사를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과 한국어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정선희, 2009). 의사소통의 한계는 자유로운 감정 표현에 영향을 미쳐 결혼이주여성이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끌어안은 채 살아가게 한다(전주희, 김병철 2013). 전주희와 김병철(2013)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적 한계로 인해 감정을 인지하고 분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표현의 시도조차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해경(2012)은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 한계가 한국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주원인이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교육 및 의사소통 측면까지 이차적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결혼이주여성은 잠재적으로 사회적 갈등요인을 품고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호경, 2010).

2) 중국 결혼이주여성

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은 중국(한국계) 31.1%, 베트남 23.4%, 중국 19.3%, 필리핀 6.2%, 일본 4.2%순으로 중국이 그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많다(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1980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방정책과 1992년에 진행된 한중·수교는 중국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최금해, 2010).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과 중국인이 있다. 조선족은 중국 정부가 공인한 한족 외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서 넓게는 한국계 중국인을 모두 의미한다(정재남,

2007).

한국과 중국은 매우 상이한 문화적 특성이 있다(임혁, 2010).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 소수민족과의 공존 속에서 복수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Jia, 2014). 중국은 문화대혁명 이후에 남녀평등을 중요하게 여겨 왔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최정인, 2015), 아시아 중 가장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나라이다(한건수, 2006). 동시에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고 민족 우월감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이다(진옥성, 2008; 최상진, 2011).

반면에 한국 문화는 공동체적 신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진옥성, 2008; 최상진, 2011), 단일민족 사상이 깊게 뿌리 박혀 있다(이무영, 강기정 2007). 뿐만 아니라 한국은 남녀평등 보다는 남성우월주의 사상으로 한국 남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의 성향이 지배적이다(Jia, 2014). 때문에 중국문화권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은 경제, 문화, 사회관계 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의 경계선에 선 존재로서 간주 된다. 최운선(2007)은 결혼이주여성이 자국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인을 한국의 생활방식, 사회적 관계망, 습관적 행태에 통합되어 나가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한국사회 문화에 순응, 동화, 흡수되기를 강요당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만족) 중국 54.7%로 베트남 61.9% 과 몽골 58.1% 등 타 국가들에 비해 낮았다(권태연, 2011).

낮은 만족도의 이유로는 부부간의 큰 연령차, 가정폭력(김웅지, 2012), 남편의 낮은 사회적 지위, 대인관계의 어려움(성도경, 이지영 2010), 종교 차이(김유순, 오영숙, 인현화 2012)등이 있다. 더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공통적으로 겪는 시댁 및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 양육 문제, 경제적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 등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김영주, 김희경, 이현주, 2008). 이러한 어려움은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박주희·정진경, 2007). 이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

레스를 경험하게 한다(Berry, 1980). 중국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와의 문화 차이로 인한 지속적 갈등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이한우, 송형철 2015),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의 위기를 넘어서서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만철, 이숙자, 2017; 이일정, 2019).

3)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특성

(1)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우울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흔한 정서 문제 중 하나로, 단순히 우울한 기분을 경험하는 정도부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까지 넓은 범위에 속한 질병이다(정선희, 2009). Bhugra(2003)는 이민자의 우울이 이주과정에서 가족, 친구, 직업상태 및 기타요인 등 특정 관계의 상실로 인한 슬픔에서 올 수 있으며, 이러한 상실을 충분히 슬퍼하지 못한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주과정에서 겪는 이민자의 적응 스트레스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를 가져와 실패감, 근심, 무력감 및 무가치함 등의 정서적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Beck, 1967). 또한, 이주 후에도 통제된 장소, 결핍된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 불충분한 사회적 지원은 이주과정 자체와 연결되어 치명적인 신념과 부정적인 삶의 사건으로 남아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Bhugra. 2003). 박신영(2016)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고립감과 외로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감이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부적응, 미숙한 부부간의 의사소통, 가족으로 한정된 대인관계 등으로 인해 가중된 불안감과 좌절감은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우울의 원인이다(성정희, 박재인, 2010).

김현명, 이혜진, 이상열(2013)의 조사에서는 2012년 익산지역의 결혼이주여성 119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유병률을 조사 분석한 결과 29%(34명)가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인의 우울증 유병률 평균인 6.7%보다 4배 가까운 수치이다. 우울증을 측정하는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지수점수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평균 점수는 12.2점으로 8.43점인 일반인보다 높았다(김현명, 이혜진, 이상열, 2013). 양옥경과 김연수(2007)는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수준이 평균 15.9점으로 지역사회 일반인구의 우울 수준 평균인 14.91점(조맹제, 김계희, 1993) 보다 높은 수치라고 보고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문제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어려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권구영, 박근우 2007).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의 갈등은 가정폭력, 가출의 문제로 확대되어 국제결혼가정의 해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율이 국제결혼가정 이혼율의 72.5%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국제결혼가정의 해체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녕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화란, 2012). Gottman(1999)은 이혼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했다.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들의 경우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 또는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현상은 생애 초기부터 청소년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문경주, 오경자, 1995; 박현선, 2014; Beardslee, Bemporad, Keller, & Klerman 1983). 부정적으로 발달한 공격성은 청소년기 이후에도 사회 부적응적 행동 또는 범죄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우희정, 2014).

반면 우울감을 덜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언어 습득도 빠르고 결혼생활에서 남편과의 갈등이 적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여 사회적 지

지를 많이 받는다(이승신, 2008).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정도는 남편 및 주변인의 행복과도 연결되어 가정의 건강을 비롯한 사회문제에도 큰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한 정신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근원적 해결 대책이 요구된다(문형란, 2016, 박선태,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혼이주여성의 고충을 다룰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문화적 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창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겪는 부적응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어지도록 하는 또 하나의 사회적 요인이다(김현실, 2011).

(2) 결혼이주여성의 대인관계

인간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김현숙, 2006). 대인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행동으로(김영희, 2009; 임주리, 2011; Heider, 1964), 대인관계에서 주고받는 자극과 반응은 주로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이수진, 2012).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결혼이주여성은 공통적으로 언어적 한계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를 겪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 한계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가족들과의 대화 단절로 이어져 남편과의 갈등,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김오남, 2006; 박재규, 2006; 양순미, 2006; 이한동, 2008, 이향순, 2012). 또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관계망 및 사회참여 기회의 제한, 한국 국적 취득의 어려움,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등을 유발 한다(김경옥, 2010; 이금연, 2003; 조경림, 1997).

결혼이주여성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대인관계 갈등 상황을 가정에서부터 겪고 있다. 정천석(2009)은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 가부장적인 남편의 태도에 직면하고, 시부모와 시댁 식구들에게 일방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상황을 경험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은 이웃들과 대인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강유진, 1999;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구차순(2007)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툰 한국어로 인한 부끄러움, 외국인이라 차별하는 이웃은 필요 없다며 스스로 거리감 두기 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이웃과 매우 제한된 교류를 할 수밖에 없어 지역사회부터 동떨어진 일상을 살아간다(윤동화, 2013). 2018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거주 기간이 늘면서 한국 생활 적응력은 높아졌지만 ‘도움·의논 상대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늘어나 사회관계망 결핍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로움’(24.1%)을 한국 생활의 어려움으로 꼽는 비율도 함께 증가(5.6%)했으며, ‘여가·취미 생활을 같이할 사람’(40.7%),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38.5%), ‘자녀교육 관련 사회적 관계’(33.9%) 등 사회적 관계를 묻는 항목에 “(관계가) 없다”고 답한 비율도 2015년에 비하여 모두 증가했다. 한정적인 대인관계의 지속은 활동영역을 축소되게 하고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껴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안정선, 2006). 반면에 결혼이주여성의 원활한 사회적 참여는 그들이 주류 사회적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서재복, 권인탁, 임명희, 2016).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아 정치 또는 경제활동 등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더 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서재복, 임명희, 2018).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 가정, 사

회적응에 필수적인 대인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김성찬, 김유정, 2011). 최양님(2015)은 결혼이주여성의 대인관계 문제가 이들이 호소하고 있는 성격, 정서, 정신건강의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대인관계의 양과 질이 만족스럽고 효과적일 경우 한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발달을 하게 되지만, 불만족스러울 경우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안정선, 2009). 즉, 결혼이주여성의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일원인 주체적 존재로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타악기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1) 치료적 도구로서의 타악기

타악기는 가장 오래된 악기의 형태로 나무와 가죽, 금속 등으로 만들어지며(이은진, 2016), 동서양을 불문하고 고대문명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명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김민재, 2015). 일반적으로 타악기는 음정의 유무에 따라 유율 타악기와 무율 타악기로 나뉜다. 고정된 음을 가진 유율 타악기로는 톤차임, 팀파니, 실로폰, 마림바, 차임벨, 북웨커 등이 있으며 무율 타악기로는 콩가, 드럼, 켈레, 마라카스, 귀로 등이 있다. 이 외에 확정된 음정은 없지만 여러 음높이가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불특정 음정 타악기로는 템플블럭, 우드블럭 등의 세트형 악기가 있다(김단비, 2013). 타악기는 단순히 두드리기, 치기, 흔들기 등의 방법으로 쉽게 연주할 수 있어 누구나 연주에 참여할 수 있다(김지현, 2016; 양근수 2008; 최경환, 박창태, 2001).

타악기의 두드림은 아픔, 슬픔,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기쁨,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박민정, 2014; 최병철, 1999).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은 악기의 진동이 가지는 물리적 에너지와 음악적 요소를 통해 표출된다(김은주, 2014; Radocy & Boyle, 2001; Boyle, 1988). 악기 연주를 통한 표현은 음악적 환경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박민정, 2014; Gfeller, 2002). Nordoff와 Robbins(1995)에 의하면 직접 참여하는 연주 활동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인식하여 사회적 행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연주과정은 개인의 감정과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자신의 문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하은경, 2004). 강경선(2009)은 타악기 연주를 통해 개인이 인식하지 못한 내적 에너지를 배설, 승화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재탐색하고 발견하는 중요한 치료적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다.

2) 집단 음악치료

집단치료는 동일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해결해 가는 치료방법이다(이은지, 2015; 이철수, 2013). 집단에서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자신을 표현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최애나, 한용희, 정광조, 2009). 이러한 타인과의 교류는 관계 형성을 통해 동질감을 형성하며 응집력을 높일 수 있다(신미경, 정규진, 최애나, 2011). 또한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원들 간의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차미림, 강경선, 2017).

집단 음악치료는 고립감, 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긍정적 상호 교류와 관계의 재경험을 하게 한다(윤주리, 2012; 정현주, 최성윤, 2005). 즉,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음악적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구성원 간의 음악적, 비음악적인 상호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집단 음악치료에서 음악은 울타리로서 작용하여 개인이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타인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Davis, Gfeller & Thaut, 2002). 타인과 공유하는 음악적 경험은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유도 한다(박혜영, 박부진, 2012; 최병철, 1999). Rogers(1968)는 집단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사회에서 받는 외로움, 고립감을 감소시키며 변화에 도전하는 발판이 된다고 하였다(양지은, 2007; 이은지, 2015). 예를 들면, 집단 음악치료에서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은 커다란 집단이 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통된 과제에 몰입하고 협동하도록 이끈다. 타집단원이 활동 중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자신감과 목표를 가질 수 있다(양서진, 2015; 최병철, 1999). 집단 음악치료는 집단 환경 내에서 고유의 존재로서 함께 하는 것을 연습한다(Kim, 2013).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집단원은 서로에게 지지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양서진, 2015; 최병철, 1999).

효과적인 집단 치료를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Goelst(2016)는 음악치료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가 만날 때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새로운 문화와 내담자의 특성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치료사는 다문화 문제 및 자신의 견해와 태도를 탐구하여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Chase, 2003).

3) 우울 감소와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우울 감소와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는 집단 안에서 개인이 친근감, 의사소통, 자기개방, 신뢰감, 이해성, 민감성, 만족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는 중재이다. 이러한 중재 과정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연습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는 리듬 연주, 즉흥연주, 드럼서클, 화성연주, 앙상블 등의 다양한 합주 활동을 포함한다. 위 활동을 통해 내담자는 선호 악기와 연주 방법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직접 표현할 수 있다. 안지영(2009)은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자기표현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중요한 치료적 개입이 된다고 하였다. 내담자는 악기 연주를 통해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담을 수 있으며 악기 즉흥연주를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지각하고 억압됐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장상민, 2015; 정현주, 2011; Bruscia, 1987). 김수지(2012)의 연구에 따르면, 내재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의 해소를 도와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리듬 연주, 즉흥연주, 드럼서클, 화성연주, 앙상블 등과 같은 성공적인 합주는 높은 만족감과 긍정적 정서를 제공한다(양은정, 2007; 이은주, 2018; 전윤경, 2015). 타악기 앙상블은 연주 구간을 정하고, 숫자나 색깔 악보 등을 함께 이해하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은 집단원과 함께 토의하면서 조율과 협력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간다(박선영, 2018; 유지혜, 2020). 이는 집단이 협동심을 갖도록 하며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과 수용 및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하도록 돕는다(이지인, 2020; 홍민주, 순진이, 2017). 한 사람이 1개 이상의 악기를 맡아 조화롭게 만들어야 하는 화성연주는 집단 내 개인의 역할을 인

지하게 하며 역할 수행의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음정을 함께 연주할 때 발생하는 악기의 울림은 지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유선숙, 2003). 김지혜(2009)는 합주에서 개인의 역할과 타인의 역할을 인식하는 경험은 관계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타인과의 사회적 거리, 접근방식 등을 고민하는 과정은 대인관계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음악치료에서의 합주는 결과의 창출이 아닌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긍정적인 자아를 세우는 데 효과적이다(김혜정, 양은아 2013; 정효숙, 2008).

타악기 집단 음악치료를 중재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울과 대인관계와 같은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공적인 구조화된 그룹 타악기 연주 경험은 초등 고학년 위축 아동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위축 감소에 효과적이다. 이와 더불어 구조화된 그룹 타악기 연주는 상호작용과 소통행동을 이끌어 내어 또래관계 향상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김영은, 2016). 박윤정과 강민수(2013)는 부적응 청소년들에게 드럼 클럽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부적응 청소년들은 정서 지능 향상, 우울 성향감소, 자아상 확립, 긍정정서 향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고 이후 문제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 노인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어져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이경진, 김수지 2011). 윤이나(2017)는 간병인들이 타악기 자유즉흥연주를 통해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내재된 감정을 탐색하고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울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간병인의 우울감소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변화로 이어졌다. 유지혜(2020)는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중재로 하여 중재 후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아동의 긍정적인 자기인식, 긍정적인, 자기표현, 유대감 및 협동심, 올바른 방향의 스트레스를 관찰하였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타악기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가 다양한 대상자들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성 변화를 보기 위해 적합한 중재 방법임을 시사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차별, 향수, 부적응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에 노래 중심 음악치료 활동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오선화 외, 2016). 이혜경(2013)의 연구에서는 악기연주 활동이 결혼이주여성의 비언어적 표현과 음악적 표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타악기 음악치료는 한국에서 고립되고 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사회적 참여에 대한 기대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연구는 주로 컴퓨터나 가정폭력 결혼이주여성들이 대상으로 음악치료 분야에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중재방법으로는 노래심리치료를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결혼이주여성이 타악기를 활용한 다양한 중재방법들을 살펴보고 경험하고자 하였다. 개인이 경험하는 즉흥연주, 드럼서클, 타악기 합주 등의 활동은 자기 인식과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단계를 거쳐 나아가 건강한 상호작용으로 대인관계 향상에 기대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G구 소재의 D다문화 센터에 출석 중인 중국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14명을 유의 표집 하여 실험집단 7명, 통제집단 7명으로 무선 배치하였다. 연구 대상의 선정기준은 본 연구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자로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중국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였다.

2. 측정 도구

1) 우울 척도

본 척도는 Radloff(1977)가 고안한 CES-D 척도를 전경구, 이민규(199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써 지난 1주일 동안 경험했던 우울에 대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 중 긍정적 감정을 측정하는 문항인 4, 8, 12, 16번은 채점과정 중 역채점으로 처리하였다. 하주영, 김윤지(2013)의 연구에서 척도지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4이다.

2) 대인관계 척도

본 척도는 Schlein과 Guerney(1977)의 대인관계 변화 척도를 권경미(2009)가 수정·보완한 것을 척도지로 사용하였다. 총 25개의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써 대인관계에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7가지 대인관계 변화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문경(2017)의 연구에서 척도지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2이다.

<표 III-1> 대인관계 척도의 문항 구성

항목	하위영역	문항 수	측정 문항	신뢰도
대인관계	만족감	4	1, 2, 3, 4	.82
	의사소통	4	9, 14, 18, *19	.76
	신뢰감	3	15, 23, 24	.61
	친근감	3	5, 11, 16	.61
	민감성	2	6, 10	.68
	개방성	5	12, 17, 20, 21, 22	.90
	이해성	4	7, 8, 13, 15	.87

* 역채점 문항

3. 연구 설계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활동에 참가한 실험집단과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

단 간의 처치 효과를 알아보는 사전 사후 통제집단 설계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의 총 10회기 활동이 끝난 후 사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활동 후 집단 간 사전 사후 변화 분석과 변화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 내 사전 사후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 III-2> 연구 설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	O2
통제집단	O3		O4

O1, O3 : 사전 검사 (우울, 대인관계 검사)

O2, O4 : 사후 검사 (우울, 대인관계 검사)

X : 실험 처치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4. 연구 절차

1) 사전 검사

본 연구의 사전 검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우울 검사, 대인관계 검사를 음악치료 프로그램 중재 이전 2018년 02월 03일에 실시하였다. 중국어 통역사가 사전검사를 실시할 때 함께 하였으며 한국어의 이해가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한 문항씩 번역해 주면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2) 사후 검사

사후 검사는 사전 검사와 동일한 측정 도구로 진행되었으며, 음악치료 프로

그럼 종결 이후 2018년 04월 28일에 실시하였다. 사전검사 때와 동일한 통역사가 사후 검사 실시할 때도 참여하였으며 한국어의 이해가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한 문항씩 번역해 주면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3) 프로그램 절차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G구 소재의 D다문화 센터에 출석 중인 중국 결혼이주여성 7명을 대상으로 2018년 2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주 1회 120분씩, 총 10회기 동안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방법을 훈련받은 음악치료사 1명이 보조반주자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10회기에 걸친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 회기 구성은 다음 <표 III-3>와 같다.

<표 III-3> 프로그램 한 회기 구성

프로그램 단계	소요시간	활동내용
도입	10분	헬로우 송 & 음악스트레칭
본 활동	100분	타악기 중심 집단음악치료 (타악기 리듬합주, 드럼서클, 즉흥연주, 화성연주, 타악기 앙상블 등)
마무리	10분	활동 느낀점 나누기 & 굿바이 송

프로그램은 각 회기 120분으로 진행되었으며 매 회기의 시작은 헬로우 송을 부르고 간단한 신체모방 활동(음악스트레칭)으로 도입 활동을 하였다. 본 활동에서는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방법으로 리듬합주, 드럼서클, 즉흥연주, 타악기 앙상블 등의 음악활동을 하였다. 마무리에는 활동에 대한 느낌을 나누고 굿바이 송을 부르며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5.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

1) 음악치료 프로그램 단계별 목표

본 연구의 타악기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김지현(2011) 우울 감소 프로그램과 장상민(2015)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토대로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연구 목적에 맞게 이를 재구성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라포 형성, 자기 인식 및 감정 표출, 부정적 정서 완화, 긍정적 자기 변화로 구성하였다.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구성은 <표 III-4>와 같다.

<표 III-4> 타악기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구성

단계	회기	목표	활동주제 및 내용
초 기	1	라포 형성	프로그램 소개
			개사를 통한 자기소개
			타악기 소개 및 소리 탐색
중	2	자기 인식 및 감정 표출	자기 인식 및 자신의 주된 감정 인식
			코퍼벨 연주 선호 타악기 고르기
	3	자기 인식 및 감정 표출	자기 탐색 감정 해소 및 즐거움 경험
			패들드럼 연주
4		긍정적 감정 전환 및 자신감 회복	
			톤차임 화성 연주

기	5	부정적 정서 완화	자기 개방	타악기 즉흥연주
	6		자기표현	타악기 솔로 연주
마	7		성공적인 의사소통 경험	타악기 리듬 합주
무	8	긍정적 자기 변화	치료사와 구성원들과의 신뢰감 형성	드럼서클
리	9		만족도 높은 대인관계 경험	타악기 앙상블
종 결	10	종결	자신에 대한 긍정적 변화 인식 및 종결	핸드벨 멜로디 연주

2) 음악치료 프로그램 각 회기별 활동내용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에 사용한 방법으로는 타악기 연주, 유율 타악기 선율 및 화성연주, 즉흥연주, 리듬 합주, 드럼서클, 타악기 앙상블 등이 있다.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도입단계(1회기)와 작업 단계(2-6회기), 종결단계(7-10회기) 총 3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도입단계(1회기)는 음악치료 환경에서 치료사와 집단원들 간의 라포 형성을 목표로 활동을 구성하였다. 1회기에는 전체 회기(총 10회기)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하고 치료사와 집단원들이 함께 인사하며 시작하였다. 활동으로는 'San E - 산이 소개하기' 개사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집단원들의 국적,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등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표현하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밍업 과정에서는 첫 만남과 활동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온 대상자들에게 스트레칭과 body percussion을 사용하여 긴장을 완화 시켰다. 이후 다양한 타악기를 탐색하면서 앞으로 진행할 프로그램에 호기심을 갖게 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집단원들이 친숙해지도록 하였다. 2회기에는 자기인식을 목표로 활동을 구성하였다. '고향'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이주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자신의 감정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활동의 노래는 '아리랑', '월량대표아적심' 노래를 사용하여 코퍼벨과 선호 타악기 연주를 하였다. 고향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이주와 결혼에 대한 감정들을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코퍼벨 연주를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나누며 공감과 이해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3회기에는 현재 자신의 주된 감정을 해소하며 이후 집단원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활동의 노래는 'We will lock you - Queen' 노래를 사용하여 집단원 전체가 리듬을 활용한 패들드럼 연주를 진행하였다. 2회기에 인식한 감정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여 부정적인 사건과 감정을 연주를 통해 해소하였다. 4회기에는 의미 있는 가사의 곡을 함께 연주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 전환을 유도하였다. 활동의 노래는 '바람의 노래 - 조용필' 곡을 사용하여 톤차임 연주를 한다. 노래를 함께 배우고 나서 가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고 숫자악보를 사용하여 화성연주를 진행하였다.

5회기에는 타악기 즉흥연주를 통해 자유로운 표현과 자기 개방을 유도하였다. 즉흥연주의 장점을 사용하여 집단원들의 표현이 더 자유로워 졌으며 이후 선법을 적용한 즉흥연주는 안전한 음악적 구조 안에서 수용과 지지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6회기에는 '터키행진곡'으로 모차르트의 곡을 사용하여 타악기 솔로 연주 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을 하였다. 집단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타악기를 선택하여 집단 안에서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표현을 의미 있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후 주고받기 형식을 제공함으로 집단원들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7회기에는 타악기 리듬합주를 통해 성공적인 의사소통 경험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싸이 노래 ‘New Face’ 를 사용하여 북웨커 리듬 합주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낮선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가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대인관계에 대해 나눌 기회를 제공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리듬을 배우고 맞추는 과정과 단계적 연주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며 음악적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8회기에는 치료사와 집단원들간의 신뢰감 형성을 목표로 드럼서클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드럼서클은 다양한 소리들이 하나가 되어 만족도 높은 음악을 만들어 주었으며 이때 타악기는 쟈즈, 콩가, 아고고벨, 카바사 등 멜로디가 없는 악기로 구성하였다. 집단원들은 드럼서클을 통해 각기 다른 음색을 가진 악기들로도 조화로운 하나의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를 통해 다름에도 서로가 소통을 하여 잘 맞추어 가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타인과 만족도 높은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9회기에는 만족도 높은 대인관계의 경험을 목표로 타악기 앙상블 곡을 만들고 발표회를 하였다. 집단원들은 함께 악기선택, 연주형식 및 구간을 만들며 타악기 앙상블 곡을 완성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하게 되었다.

10회기에서는 핸드벨 연주를 통해 자신의 그동안 변화들을 생각하고 정리하도록 유도하였다. 활동의 노래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 정우, 한효주’ 버전 노래를 사용하여 핸드벨 연주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동안의 집단원들 간의 교류경험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와 나아가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후 활동을 하면서의 느낀 점과 변화들을 부담 없이 나누었다. 각 회기별 음악치료프로그램의 활동 내용과 치료적 근거와 각 회기의 사용 노래와 치료적 근거는 다음 표 <표 III-5>, <표 III-6>과 같다.

<표 III-5> 각 음악치료 활동 내용 및 치료적 논거

회기	활동내용	치료적 논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치료 프로그램 소개하기 바디 퍼커션 자기소개노래 만들고 부르기 타악기 소리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을 인식하고 랩으로 개사하며 자신을 소개하는 활동은 첫 만남의 긴장과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곡의 후반부에 소개한 사람의 이름을 집단원들이 따라 불러 주며 첫 만남의 어색한 분위기를 덜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여러 가지 타악기 소리 탐색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향에 관련한 노래 배우기 코퍼벨 연주하기 선호타악기 고른 후 이야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향에 관련된 노래와 자국노래를 통해 이주에서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감정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코퍼벨 연주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다. 자신이 선호하는 타악기를 선택하고 이야기 하며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들드럼 자유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로 북을 연주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동기를 유발시키고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박자를 활용하게 되는 연주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강한 집단 정체감을 조성시키게 되어 소속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박명숙, 이미자, 천성문 200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미 있는 가사가 담긴 노래 배우고 부르기 숫자악보 익히기 톤차임 선을 및 화성연주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톤차임은 어려운 음악적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아름다운 소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조성, 리듬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로 구성된 음악은 현재의 심리상태와 감정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홍민주, 순진이,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 연주는 집단원들이 음악을 더 풍성하고 완성도 있게 느끼며 지지감을 줄 수 있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악기 즉흥연주하기 • 선법에 따른 즉흥연주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듬이 강조된 타악기 연주를 통해 선천적 음악성이 표출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선법의 즉흥연주를 통해 음악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경험한다. • 여러 가지의 음색을 지닌 타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하면서 자신의 소리뿐 아니라 타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원지원, 201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 타악기 솔로 연주하기 • 음악주고받기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안에서의 솔로활동은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 음악 주고받기 활동을 통해 집단원 들끼리의 언어적 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소통도 가능하게 한다. • 집단 안에서의 솔로 활동은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노경외, 201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 이야기하기 • 리듬 악보 익히고 연주하기 • 북웨커 합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듬 합주는 적대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다. • 북웨커는 간단한 연주방법으로 집단원들이 하나의 곡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협동심을 배울 수 있으며 곡을 완성했다는 성취감을 준다(유지혜, 202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럼 서클 하기 • 퍼실리레이터 경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럼의 특징은 작은 마찰에도 큰 소리를 내는 효과가 있으며 자신의 에너지 표출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 타집단원의 연주를 보고 듣고 하면서 긍정

		<p>적인 에너지 주고받을 수 있으며 드럼서클 과정을 통해 신뢰감을 형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명씩 악기의 소리를 쌓으며 집단이 하나의 음악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표현을 통해 자긍심을 느끼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노경외, 201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악기 앙상블 연주 토의하기 • 타악기 앙상블 곡 완성하고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앙상블 곡을 만드는 교류의 과정을 통해 화합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 후 곡을 발표하면서 공동체 의식 강화와 응집력을 형성하게 된다. • 발표회는 집단원들 간에 성취감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며 타인과의 관계, 리더십 등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돕는다(백수정, 강경선, 201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벨 선율 연주하기 • 활동을 마친 후 느낀 점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활동으로 구성원들과 자신,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랑이 담긴 노래를 부르며 자신과 타인의 가치에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 핸드벨 멜로디 연주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차례를 기다리고 음계에 함께 맞추어 연주에 성공하는 것은 자기조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첫 회기에 자신의 모습과 마지막 회기의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 하면서 집단원들의 수용과 지지로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표 III-6> 각 회기별 사용노래 및 치료적 논거

회기	노래	치료적 논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이 소개하기 - San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 박자의 기본 박으로 곡을 어렵지 않게 느끼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 RAP 형식의 곡으로 멜로디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기본 박 안에서 충분히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음악이 만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리랑 - 한국민요 • 월량대표아적십 - 중국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의 음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쉬는 구간이 같아 연주하기에 편리하다. 코퍼벨의 경우 울림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음악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 ‘A-B-A’의 형식의 짧고 구조적인 노래로서 쉽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대중적으로 알려진 아리랑은 가사의 반복으로 인해 한국어의 어려움이 있는 집단원들이 따라 부르기에 용이하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 will lock you - Qu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징적인 리듬을 가진 곡으로 리듬변형과 확장연주에 용의하다. 따라서 북으로만 연주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지 않게 느껴진다. • 후렴구 5-4-3-2음의 순차적 구조로 멜로디가 어렵지 않아 노래 부르기 활동을 접목하여 음악적인 완성도와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람의 노래 - 조용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J = 70의 빠르기로 느린 곡의 분위기를 느끼고 가사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며 톤차임을 함께 연주하게 된다. ‘많은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잘 견뎌내며 앞으로의 삶과 사람을 사랑 하겠다’는 의미의 가사로 집단원들이 삶에서 실패한 것 같거나 힘들게 느껴지는 한국생활 속에서 사랑이라는 희망을 생각하게 한다. 긍정적인 가사를 담은 노래는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여 표현하도록 도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한다(왕혜자, 201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터키행진곡 - 모차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성 부의 다성 음악으로 메인선율이 두 개다. 성부가 나뉘어 다른 옥타브로 같은 음을 치면서 멜로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처럼 성부의 음이 다를 경우에는 곡 전체의 음향을 알 수 있어 더 풍부한 음악을 경험한다. 초반부의 스타카토로 지루하지 않게 느껴지며 클래식 곡을 타악기와 함께 연주해 봄으로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Face - 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가지의 리듬분할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곡의 빠르기가 $\downarrow=131$로 매우 빠른 템포의 곡으로 처음 들어도 신나고 흥겨운 느낌을 줄 수 있다. • 명확하고 반복적인 리듬은 서로 다른 리듬을 연주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공통된 박을 제공하고 그 흐름에 맞추어 서로 동조화되어 연주할 수 있게 한다(이기윤, 2017). • ‘낮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사의 의미로 대인관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생각해볼 기회가 된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 정우, 한효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도 화음을 쌓아도 어색하지 않은 멜로디의 곡으로 선율연주로 시작하여 화성 연주로의 어색하지 않게 확장이 가능하다. • Dm-G7-C-A의 코드 반복으로 연주자로 하여금 곡을 쉽게 익힐 수 있으며 음악흐름의 예측이 가능하다.

6.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사항에 대한 빈도 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나이는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울, 대인관계 점수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의 차이에 대한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대응-쌍 부호순위검정(Matched-Pair Signed-ranks)을 하였고, 각 변인의 하위요인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모든 통계적 분석은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이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이, 학력, 거주 기간, 자녀 수, 음악 듣는 횟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고 나이는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출신국적은 모두 중국이다. 실험집단의 직업으로는 요리사, 회사원, 통번역 프리랜서, 무역회사, 주부가 있었으며 통제집단의 경우 요리사, 사무직원, 인천공항 세관, 주부 등이 있었다. 검정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p > .05$) 두 집단은 동질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IV-1>, <표 IV-2>와 같다.

<표 IV-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실험	빈도		백분율	χ^2	p
			통제	전체			
학력	중졸	2	0	2	14.3	4.80	.187
	고졸	1	4	5	35.7		
	대졸	4	3	7	50		
거주기간	5년 미만	0	1	1	7.1	1.20	.549
	5년-10년 미만	4	4	8	57.1		
	10년 이상	3	2	5	35.7		
자녀수	1명	3	1	4	28.5	1.40	.237
	2명 이상	4	6	10	71.4		

음악듣는 횟수	매일 듣는다	1	2	3	21.4	5.33	.255
	주 5-6회	0	1	1	7.1		
	주 3-4회	3	1	4	28.6		
	주 1-2회	3	1	4	28.6		
	안 듣는다	0	2	2	14.3		
주로듣는 음악	전통음악	1	3	4	28.5	3.00	.223
	한국 대중가요	6	3	9	64.2		
	종교음악	0	1	1	7.1		

* $p < .05$

<표 IV-3> 연구대상자의 나이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측정변인	평균순위(순위합)		U	Z	p
	실험집단(n=7)	통제집단(n=7)			
나이	7.71(54.00)	7.29(51.00)	23.00	-.192	.848

* $p < .05$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한 집단으로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우울 척도와 대인관계 척도 및 각 척도의 하위요인 사전 점수에 대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우울 척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 > .05$), 대인관계 척도와 그 하위요인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s > .05$).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IV-3>와 같다.

<표 IV-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분석

측정변인	평균순위(순위합)		U	Z	p
	실험집단(n=7)	통제집단(n=7)			
우울	9.29(65.00)	5.71(40.00)	12.00	-1.59	.110
대인관계능력	6.14(43.00)	8.86(62.00)	15.00	-1.21	.224
만족감	7.21(50.50)	7.79(54.50)	22.50	-.25	.797
의사소통	6.21(43.50)	8.79(61.50)	15.50	-1.16	.243
신뢰감	6.43(45.00)	8.57(60.00)	17.00	-.97	.332
친근감	5.93(41.50)	9.07(63.50)	13.50	-1.42	.153
민감성	6.21(43.50)	8.79(61.50)	15.50	-1.18	.237
개방성	7.00(49.00)	8.00(56.00)	21.00	-.45	.652
이해성	6.29(44.00)	8.71(61.00)	16.00	-1.11	.265

* $p < .05$

3. 우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1) 우울 전체 점수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우울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점수에 대해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 간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후점수에 대한 통제적 차이는 유의미하였다($p < .01$).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우울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측정변인	평균순위(순위합)		U	Z	p
	실험집단(n=7)	통제집단(n=7)			
우울	4.57(32.00)	10.43(73.00)	4.00	-2.63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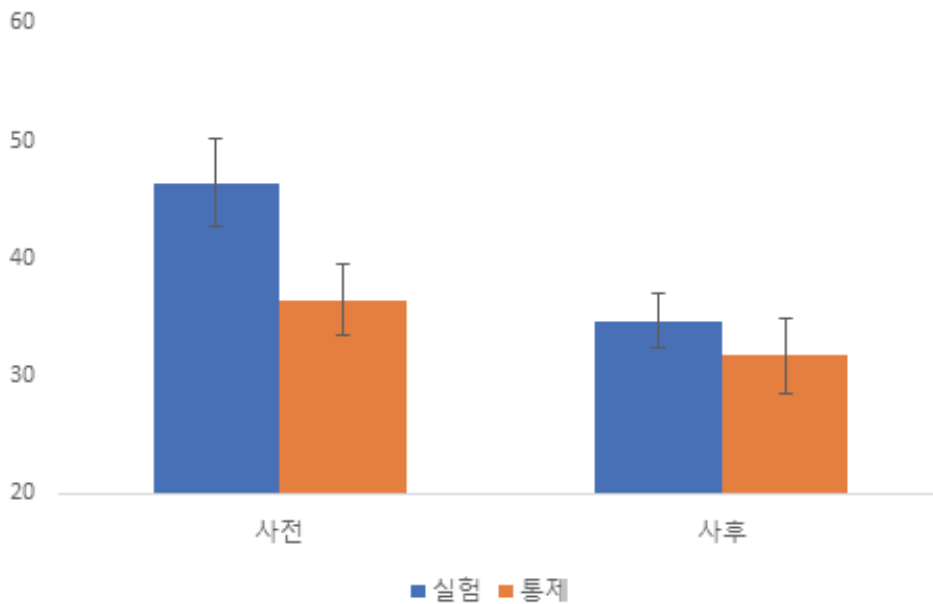
** $p < .01$

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며 평균이 감소하였고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변화($p > .05$)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5>, <그림 IV-1>와 같다.

<표 IV-5> 우울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집단	평균(표준편차)		Z	p
	사전	사후		
실험집단	46.43(9.98)	34.71(6.18)	-2.37	.018*
통제집단	36.43(7.97)	31.71(8.44)	-1.52	.127

* $p < .05$



<그림 IV-1> 우울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 점수

4. 대인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1) 대인관계 전체 점수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대인관계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점수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후점수에 대한 통제적 차이는 유의미하였다($p < .01$).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6>와 같다.

<표 IV-6> 대인관계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측정변인	평균순위(순위합)		U	Z	p
	실험집단(n=7)	통제집단(n=7)			
대인관계	10.86(76.00)	4.14(29.00)	1.00	-3.01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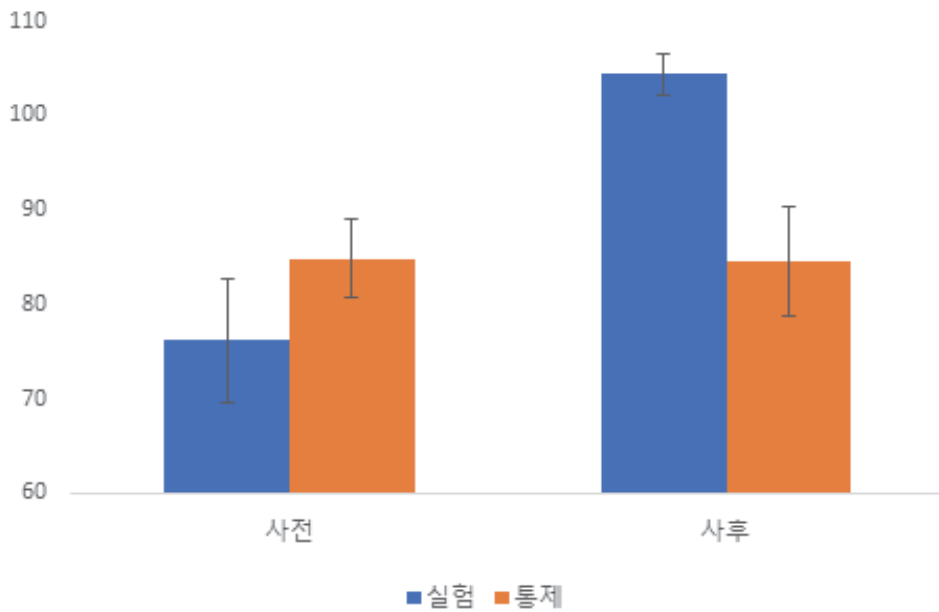
** $p < .01$

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며 평균이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변화($p > .05$)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7>, <그림 IV-2>와 같다.

<표 IV-7> 대인관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집단	평균(표준편차)		Z	p
	사전	사후		
실험집단	76.14(17.4)	104.4(5.76)	-2.36	.018*
통제집단	84.86(11.2)	84.57(15.1)	.000	1.00

* $p < .05$



<그림 IV-2> 대인관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 점수

2) 대인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점수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의사소통, 신뢰감, 개방성, 이해성 ($ps < .05$), 친근감에서는 ($p < .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만족감, 민감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s >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8>와 같다.

<표 IV-8> 대인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측정변인	평균순위(순위합)		U	Z	p
	실험집단(n=7)	통제집단(n=7)			
만족감	9.00(63.00)	6.00(42.00)	14.00	-1.34	.178
의사소통	10.07(70.50)	4.93(34.50)	6.50	-2.32	.020*
신뢰감	10.00(70.00)	5.00(35.00)	7.00	-2.30	.021*
친근감	10.71(75.00)	4.29(30.00)	2.00	-2.90	.004**
민감성	9.14(64.00)	5.86(41.00)	13.00	-1.51	.131
개방성	9.86(69.00)	5.14(36.00)	8.00	-2.12	.033*
이해성	10.14(71.00)	4.86(34.00)	6.00	-2.38	.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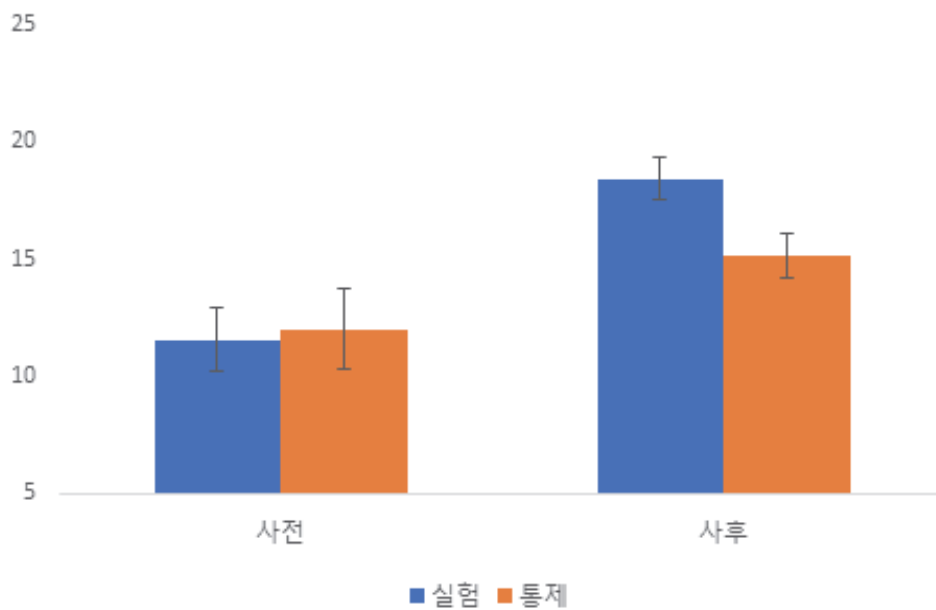
* $p < .05$, ** $p < .01$

각 하위요인에 대한 점수변화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실험집단은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에서 평균이 증가하여 유의미한 차이($ps < .05$)를 보였으나 민감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통제집단은 각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ps > .05$)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9>, <그림 IV-3>, <그림 IV-4>, <그림 IV-5>, <그림 IV-6>, <그림 IV-7>, <그림 IV-8>, <그림 IV-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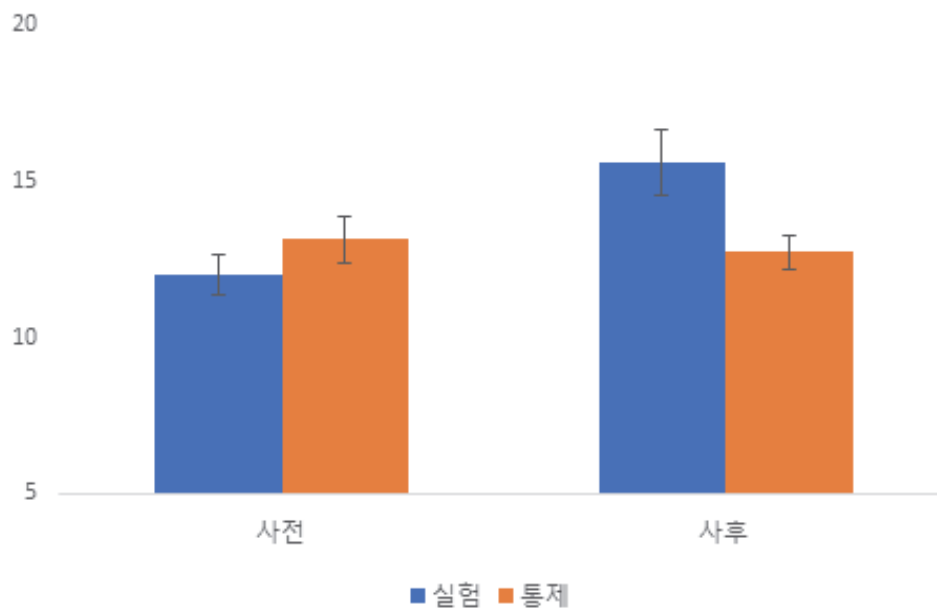
<표 IV-9> 대인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Wilcoxon-Matched Pair 검정

하위요인	집단	평균(표준편차)		Z	p
		사전	사후		
만족감	실험집단	11.57(3.50)	18.43(2.44)	-2.37	.018*
	통제집단	12.00(4.50)	15.14(2.54)	-1.69	.090
의사소통	실험집단	12.00(1.73)	15.57(2.76)	-2.20	.027*
	통제집단	13.14(1.95)	12.71(1.38)	-.513	.608
신뢰감	실험집단	8.86(2.34)	11.71(1.70)	-2.22	.026*
	통제집단	10.00(1.82)	9.86(2.19)	.000	1.000
친근감	실험집단	9.29(2.81)	12.86(1.46)	-2.22	.026*
	통제집단	11.14(1.86)	9.71(2.21)	-1.63	.102
민감성	실험집단	6.29(1.70)	9.00(3.36)	-1.45	.147
	통제집단	7.29(1.11)	7.29(1.60)	-.108	.914
개방성	실험집단	15.57(4.27)	19.00(2.38)	-2.03	.042*
	통제집단	16.86(2.61)	15.86(4.37)	-.632	.527
이해성	실험집단	12.57(3.91)	17.86(2.61)	-2.22	.026*
	통제집단	14.43(1.71)	14.00(3.55)	-.406	.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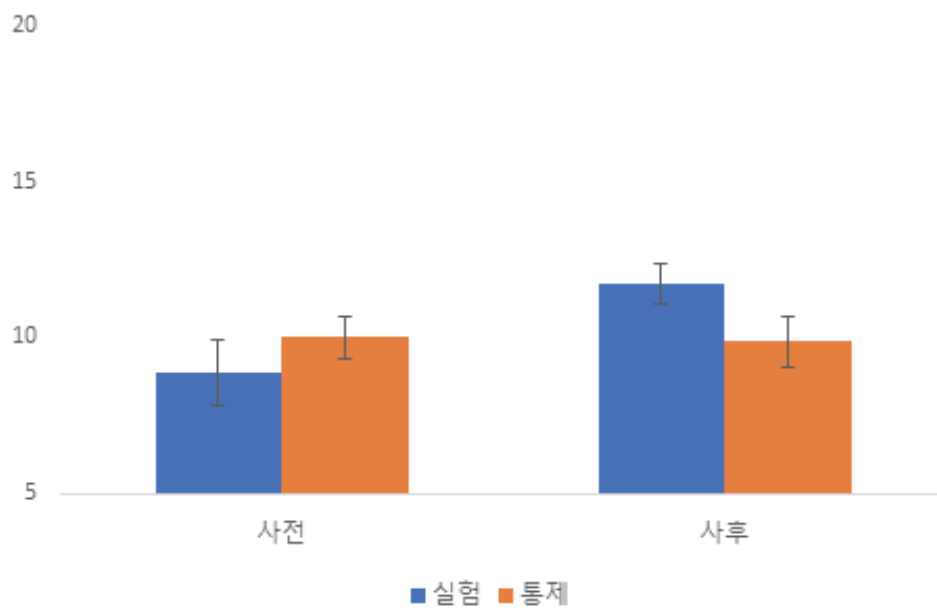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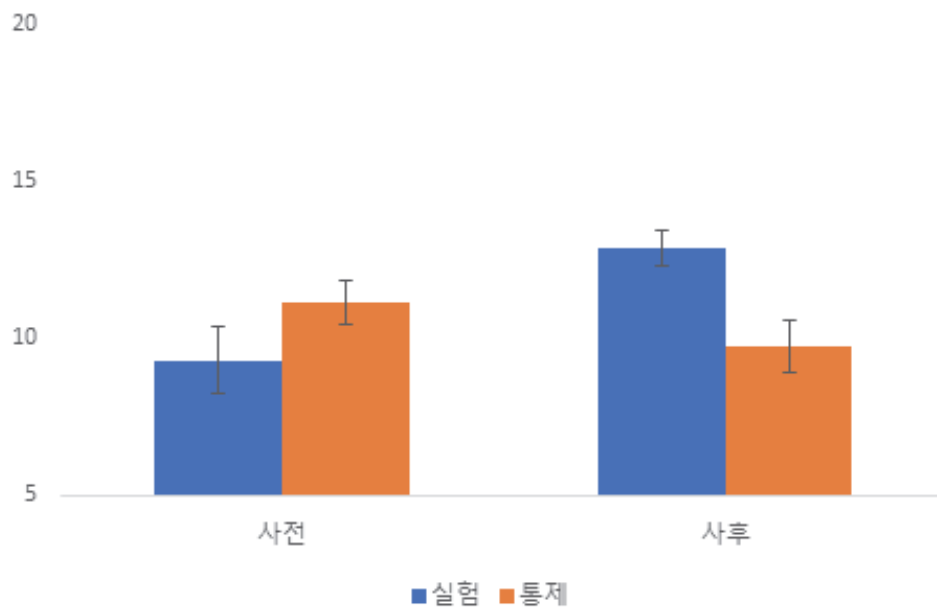
<그림 IV-3> 만족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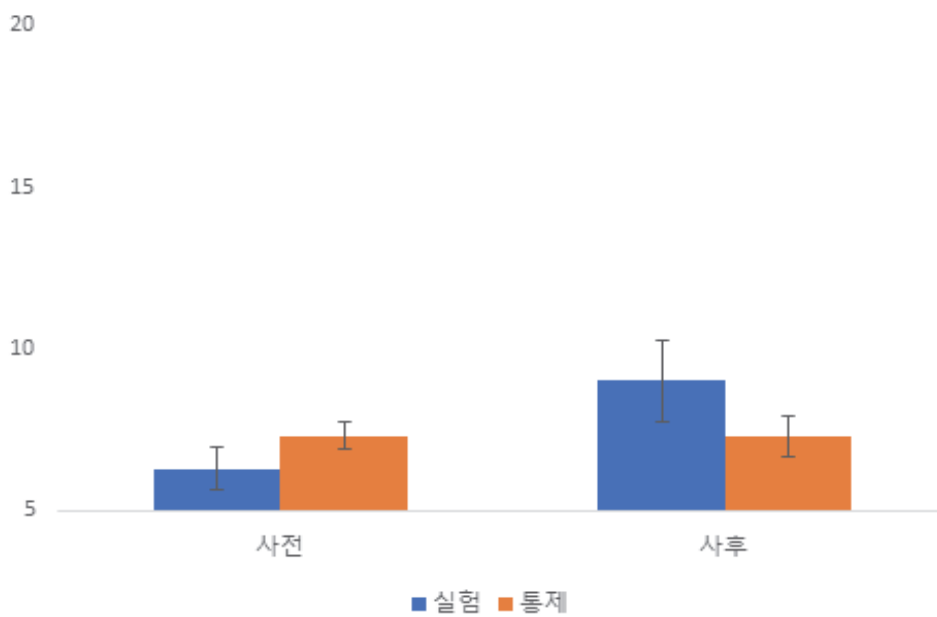
<그림 IV-4>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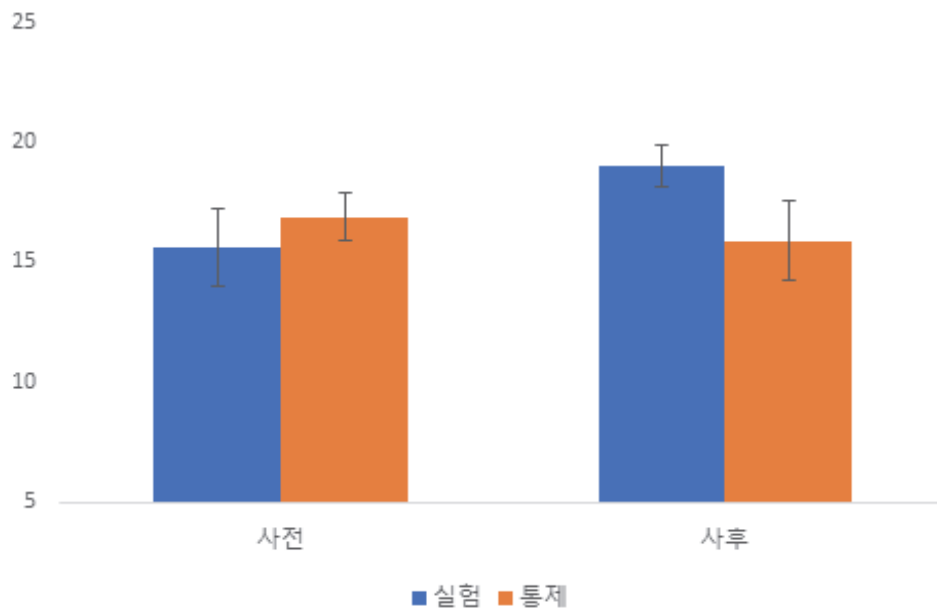
<그림 IV-5> 신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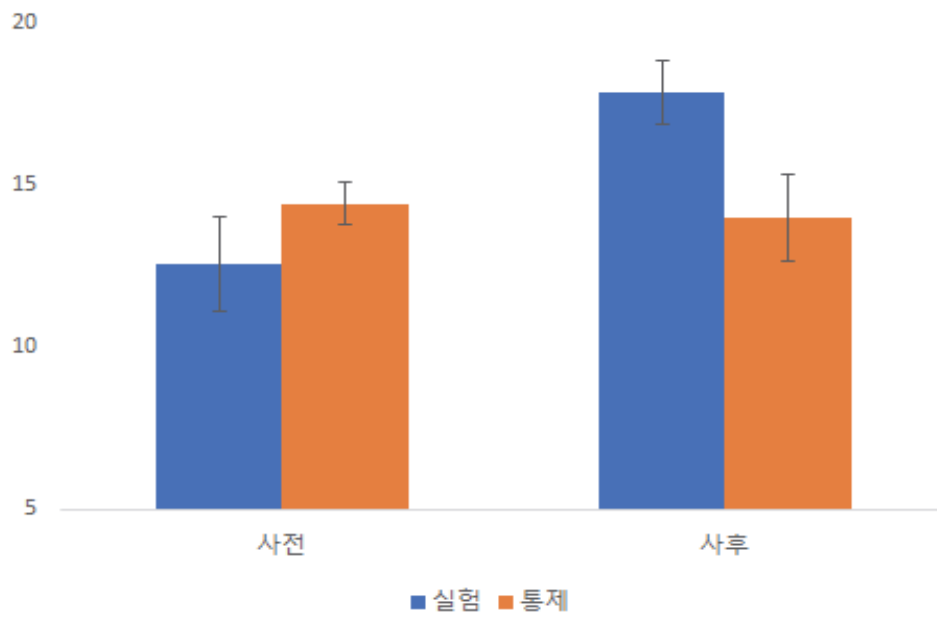
<그림 IV-6> 친근감



<그림 IV-7> 민감성



<그림 IV-8> 개방성



<그림 IV-9> 이해성

V. 결론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가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감소와 대인관계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는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에 참가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 보다 우울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였다($p < .01$). 이러한 연구결과는 치료사가 구성한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우울의 요인과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하도록 유도한 활동으로 타악기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표출함이 우울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타악기를 활용한 집단 음악치료가 연구 대상자의 우울에 효과가 있음을 밝힌 김지현(2011)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 중국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서의 다양한 부적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적응상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통한 표현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것에 긍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는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에 참가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다($p < .01$).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신뢰감, 개방성, 이해성($p_s < .05$), 친근감($p < .0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에 만족감, 민감성에

서는 유의미한 차이가($ps > .05$)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치료사가 구성한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하나의 음악을 완성해 가며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쳐 대인관계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악치료가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효과가 있음을 밝힌 오선화 외(2016)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이 대인관계의 만족감을 느끼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만족감에 대한 사전 사후 평균 점수는 실험 전 평균이 11.57점에서 실험 후 18.43점으로 향상되었다. 민감성의 경우 실험 전 평균이 6.29점에서 실험 후 9.00점으로 향상되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이유로는 집단의 수($n=7$)가 적은 것과 집단원들의 변화가 각기 다른 경향성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즉, 전체의 집단의 인원의 대인관계 점수가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가 동일하게 상승 하였지만 개인차가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의 결과로 만들어진 성공적인 합주의 경험은 이들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기반이 부족하고 가정에서부터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공통의 과제이자 결과물인 ‘완성된 하나의 음악’은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고 집단 내에서 자신의 중요성 및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는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감소와 대인관계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성을 입증하였으며 나아가 향후에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의 G구에 위치한 D센터에 출석하는 중국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각각 7명씩 구성되었다. 지역이 서울로 국한되어 있으며 표본의 크기가 작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수와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국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타악기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치료가 다국적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이 함께 참여했을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전체점수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하위요인 중 민감성에서는 집단 간 또는 집단 내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만족감 또한 집단 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뿐 두 가지 변인 모두 평균 점수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많은 인원 수와 개인차를 참고하여 더불어 장기적 중재가 이루어졌을 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과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변화가 음악 환경 외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짧은 회기 수(10회기)로 음악치료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중재 이후에도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장기간 계획 프로그램(10회기 이상)의 프로그램 이후 그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변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선 (2009). 표현예술치료로서 사물놀이의 활용방안 연구. **인문과학연구**, 23, 453-470.
- 강기정, 변미희 (2010). 다문화 가족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관련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5(2), 127-141.
- 강만철 이숙자 (2017).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검증. **복지상담교육연구**, 6(2), 83-108.
- 강유진 (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곽윤정, 강민수 (2013). 드림클럽활동 프로그램이 부적응 청소년들의 정서기능, 우울성향, 자아상, 긍정정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4), 23-47.
-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319-359.
- 국립국어원 (2020). 표준국어대사전. <https://www.korean.go.kr/>.
- 권경미 (2009). **교양무용 참여 대학생을 위한 우울증 및 대인관계(성격장애)척도 개발과 적용**.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권구영, 박근우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14(2), 187-219.
- 권석만 (1995). 우울증의 인지 치료: 자기 가치 감의 상실과 회복.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1-19.

- 권성혜 (2006). 자기성장프로그램이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 권오연 (1992). 기능음악. 음악논단, 6, 1-31.
- 권태연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 중국, 베트남, 몽골 출신 여성들을 중심으로-. 동중아시아연구, 22(2), 67-87.
- 김경민(2015). 단기 그룹 타악기 리듬연주를 통한 조현병 성인의 대인관계변화에 대한 사례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경옥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김단비 (2013). ADHD 아동의 핵심 증상에 대한 타악기 음악치료 사례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동수, 정태연, 박준성, 김현정 (2008). 동남아시아 이주여성의 결혼의 동기와 결혼 만족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 심리 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78-179.
- 김민재 (2015). 전통 타악 활동이 학교 부적응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모듬북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 김선하 (2009). 리듬악기합주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40-59.
- 김성찬, 김유정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관계. 법학연구, 43, 319-344.
- 김수지 (2012).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위한 음악의 치료적 사용. 한국예술연구, 6, 99-106.
- 김영은 (2016). 초등 고학년 위축아동의 또래 관계 향상을 위한 구조화된

- 그룹 타악기 연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주, 김희경, 이현주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건강상태 및 건강증진 방안 정책 제언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오남 (2007). 농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 복지학, 12(3), 47-73.
- 김응지 (2012).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방지 및 그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농촌, 19(2), 447-474.
- 김유순, 오영숙, 이현화 (2012).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결혼생활 어려움과 적응 전략.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349-378.
- 김은정, 조미영, 황지윤 (2015). 양적·질적 조사를 통한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과 한국인 배우자의 영양불균형 원인규명.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0. 144-144.
- 김은주 (2014). 교정음악치료가 재소자의 자아존중감 및 부정적 정서 변화에 미치는 효과 : 타악기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혜 (2009).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김지현 (2011). 민요 중심의 음악치료프로그램이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감소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김지현 (2016).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지혜 (2009). 구조화된 리듬 중심의 그룹 음악치료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사회기술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 김혁곤 (1992). 모리타 심리이론에 대한 상담이론적 탐색. *학생생활연구*, 11, 1-16.
- 김현명, 이해진, 이상열 (2012). 일 중소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증 유병률과 관련 심리사회적요인. *우울조울병*, 10(3), 165-170.
- 김현숙 (2005). 직장예절 교육이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현실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32, 39-70.
- 김혜정, 양은아 (2013).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9(4), 75-96.
- 김화란 (2012). 다문화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놀이치료 사례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2), 301-328.
- 노경의 (2012). 드럼서클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 단문경 (2017).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만성정신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변화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야대학교 대학원.
- 문경주, 오경자 (1995).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모자 상호행동 관찰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4(1), 41-55.
- 문선모 (1980).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 실시 효과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논문집*, 19(2), 195-203.

- 문형란 (2016).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30(2), 215-234.
- 박경 (2003).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가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건강**, 8(3), 581-593.
- 박명숙, 이미자, 천성문 (2008). 모듬북 놀이를 활용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우울경향 중학생의 우울과 불안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동서정신학회지**. 11(1). 29-45.
- 박미화 (2010). 집단 음악치료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 박민정 (2014). 국내 다문화가족 관련 음악치료 연구 논문 동향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민향, 정계현 (2018). 간호대학생의 우울 및 분노가 대인관계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4(2), 191-203.
- 박선영 (2018). 유아 정서능력증진을 위한 배경음악 활동 동화듣기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박선태 (2012). 결혼이민여성의 역할 부담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Double ABCX 모델의 적용**.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박송이, 채규만 (2012). 우울취약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능동적,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12(3), 349-368.
- 박신영 (2016). 사회적 자본으로서 취업여성결혼이민자의 자조그룹이 가지는 의미 탐색 :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4(4), 111-138.
- 박재규 (2009). 경기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가족생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효과 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37-154.

- 박주희, 정진경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2(4), 395-432.
- 박현선 (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중단매개효과분석 : 우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 27, 353-376.
- 박혜영, 박부진 (2012).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가족치료연구**, 11, 69-83.
- 백수정, 강경선 (2016). 집단 창작 중심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2(3), 87-108.
- 생활법령정보 (2020). 결혼이민자.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 서재복, 권인탁, 임명희 (201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대한 문화적응 매개 효과 연구. **교육종합연구**, 14(1), 225-246.
- 서재복, 임명희 (2018).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교육종합연구**, 16(1), 173-193.
- 서혁 (2007).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 교육 지원방안. **인간연구**, 12, 57-93.
- 설동훈, 윤홍식 (2005).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 사회복지 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 247-265.
- 성도경, 이지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2(3), 749-772.
- 성정희, 박재인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증에 대한 서사적 이해와 문학치료방안. **통일인문학논총**, 49, 149-174.
- 신미경, 정규진, 최애나 (2011). 집단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4), 221-237.

- 안정선 (2006).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동료관계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안지영 (2009). 치료적 노래활동이 치매노인의 자기표현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양근수 (2008). 타악기를 활용한 유아놀이 프로그램. 서울: 엠-에드.
- 양서진 (2015). 합창중심 음악치료가 은퇴한 남성 노인의 삶의 질과 자아 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 대학원.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양옥경, 김연수 (2007). 서울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우울에 미치는 요인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79-110.
- 양은정 (2008). 치료적 유폴타악기 합주가 가출청소년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양지은 (2007). 그룹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4(1), 1-20.
- 여성가족부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http://www.mogef.go.kr/>.
- 오선화, 김은영, 정진아, 전정민, 남민 (2016). 노래 중심 음악치료 활동이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8(1), 61-85.
- 왕혜자 (2015). 긍정심리학 기반의 음악치료가 노인의 우울과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우희정 (2014).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능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부모놀이 치료학회지, 5, 5-21.
- 원지원 (2018). 오르프 기법을 이용한 그룹음악치료가 워킹맘의 양육스트

- 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선숙 (2003). 음악활동이 성인의 자율신경계 반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지혜 (2020). 리듬타악기 앙상블 중심의 집단음악치료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 및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윤동화 (2013). 다문화가정 해체가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 윤이나 (2017). 타악기 중심 자유즉흥연주 음악치료가 간병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윤주리 (2012). 집단음악치료가 관심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와 적용에 미치는 효과. 음악치료교육연구, 9(1), 55-71.
- 이경진, 김수지 (2011).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이 시설 노인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5), 153-163.
- 이금연 (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 :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 제언을 위한 원탁토론회, 134-141.
- 이기윤 (2017). 타악기 연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새터민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불안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이무영, 강기정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및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실요법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2(2), 29-44.

- 이민희 (2009). 보육 기관에서의 집단 모래 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이삼식, 박종서, 김필숙, 김형석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출산형태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진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문제와 한국어 학습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대학원.
- 이승신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이은주 (2018). 악기연주 활동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 이은지 (2015).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가 여성 보험설계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은진 (2016). 음악치료에서 타악기 활용실태와 타악기 교육에 대한 음악치료사의 인식도 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일정 (2019).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사회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이지인 (2020).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철수 (2013). 사회복지학 사전. 서울 : 헤민북스.
- 이한우, 송형철 (2015).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리뷰, 6(2), 35-39.

- 이향순 (2012). 집단모래상자놀이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혜경 (2012). 노래중심의 음악활동이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표현 증진에 미치는 효과 - 언어표현 중심으로 -.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대학원.
- 이혜경, 전혜인 (2013).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4), 413-432.
- 이호경 (2010).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여성 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4), 187-207.
- 임정미 (2010). 결혼이주여성의 심리, 사회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임주리 (2011). 정신장애인의 대인관계와 구직활동.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혁 (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189-221.
- 장덕희, 이경은 (2010).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공식적 지지가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에 미치는 효과. **젠더와 문화**, 3(1), 67-97.
- 장상민 (2015) 타악기 연주활동이 조현병 및 양극성장애의 대인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 전경구, 이민규(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1), 65-76.
- 전석균 (1994). 정신분열증 환자의 재활을 위한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전윤경 (2015). 악기연주 중심의 음악치료활동이 중도시각장애인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 전주희, 김병철 (2013). 결혼이주여성의 감정표현불능 감소에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 95-114.
- 정기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0, 70-104.
- 정선희 (2009).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자아 존중감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정천석(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 유형에 관한 질적 비교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대학원.
- 정현주 (2005). 음악 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정현주 (2011). 인간행동과 음악. 서울: 학지사.
- 정현주, 최성윤 (2005). 호스피스 환자들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증진을 위한 음악적 활용. 음악치료교육연구, 2(1), 36-46.
- 정효숙 (2008).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KJMT, 7(1), 26-56.
- 조경림 (1997). 부부의 커뮤니케이션단계에 따른 결혼만족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 조맹제, 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 환자 예비평가에서 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381-399.
- 조원섭, 유승현 (2017).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스트레스 증상과 그 영향요인: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4(1), 47-65.

- 진육성 (2008). **중국문화, 중국의 어제와 오늘**. 부산: 세종출판사.
- 차미림, 강경선 (2017). 노래 중심 집단음악치료가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3(4), 55-74.
- 천호성, 박계숙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415-442.
- 최경환, 박창태 (2001). **타악기 백과사전**. 경기: 성연사.
- 최금해 (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4(1), 329-364.
- 최병철 (1999).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 최상진 (2011).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애나, 한용희, 정광조 (2009). 집단음악치료가 정인지체 청소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5(1), 109-128.
- 최양남 (2015). **결혼이주여성의 성격특성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 대인관계 매개효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대학원.
- 최운선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6(1), 141-181.
- 최정인 (2015). **울산광역시 중국결혼 이주여성의 역경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질적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최정원, 임정하 (2018).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대학생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48(4), 447-455.
- 최희진, 안명현, 한유진 (2020). 상호작용 중심의 집단표현예술치료가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6(1), 241-269.
- 통계청 (2018). 2018년 혼인·이혼 통계 <http://kostat.go.kr/>.

- 하은경 (2004). 두드림의 다양한 임상언어. *한국학논집*, 31, 133-140.
- 하주영, 김윤지 (2013).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4), 254-264.
- 한건수 (2006).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홍민주, 순진이 (2017).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3(3), 133-155.
- Beardslee, W. R., Bemporad, J., Keller, M. B., & Klerman, G. L. (1983). Children of parents with major affective disorder: a re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7), 825-832.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Berry, J. W. & Worthington Jr, E. L. (2001). Forgiveness, relationship quality, stress while imagining relationship events,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47-455.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Boulder CO : West view Press.
- Bhugra, D(2003). Migration and depress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8(418), 67-72.
- Boyle, J. D. (1988).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2nd ed.)*. Spring field, IL: Charles C. Thomas.
- Bruscia, K. E. (1987). *Improvisational models music therapy*. St. Louis: Chales Thomas.
- Chase, K. M. (2003). Muticultural Music Therapy: A Review og Literature. *Music Therapy Perspectives*, 21(2), 84-88.

- Davis, W. B, Gfeller, K. E. ,Thaut, M. H.(2002). *음악치료학 개론* (김수지 외 공역). 서울: 권혜경 음악치료센터. (원서출판 1992).
- Edwards, K. J., Hershberger, P. J., Russell, R. K., & Markert, R. J. (2001). Stress, negative social exchange, and health symptom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0*(2), 75-79.
- Gaston, E. T (1968). *Music in therapy*. New York : Mac Millian Co.
- Gfeller, K. E. (2002). *음악: 인간 고유의 현상 및 치료의 도구*. (김수지, 고헤경, 권혜경 역). *음악치료학 개론: 이론과 실제*. 서울: 권혜경 음악치료센터. (원서출판 1999).
- Goelst, I. L. (2016). *Multicultural music therapy: A manual on cultural sensitivity in music therapy practice*.
- Gottman, J. & Silver, N. (1999).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Heider, F (196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Y: John Wiley & sons Inc.
- Jia, L. Y. (2014). *중국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Kenny, C. & Stige, B. (eds) (2002). *Contemporary voices in music therapy: Communication, culture and community*. Oslo: Unipub.
- Kim, S. A. (2013). Re-discovering Voice: Korean Immigrant Women in Group Music Therapy. *The Arts in Psychotherapy, 40*(4), 428-435.
- Merriam, A. (1964). *The Anthropology of Music*. Evanston, Illinoi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Newsom, J. T., Nishishiba, M., Morgan, D. L., & Rook, K. S. (2003).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ree domains of positive and negative social

- exchanges: A longitudinal model with comparable measures. *Psychology and Aging*, 18(4), 746-754.
- Nordoff, P., & Robbins, C.(1995). *Music Therapy in Special Education*. Inc. Ann Arbor, MI: Cushing-Malloy,
- Radocy, R. E., & Boyle, E. (2001).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최병철, 방금주 역). *음악심리학*.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1979).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gers, C. R. (1968). The increasing involvement of the psychologist in social problems: Some comments, positive and negativ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5(1), 3-7.
- Ruehlman, L. S., & Karoly, P. (1991). With a little flak from my friends: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Test of Negative Social Exchange (TENSE).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1), 97-104.
- Schlein, S., & Guerney, B. (1977). *The Relationship Change Scale(RC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ABSTRACT

The Effects of Percussion Instrument-focused Group Music Therapy on the Depression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Marriage Migrant Chinese Women

Lim, Seo-yeon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cussion instrument-focused group music therapy on marriage migrant Chinese women's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subjects were 14 marriage migrant Chinese women attending D center, located in G district, Seoul. They were randomly assigned : 7 subjects were allocated to an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s to a control group. The music therapy was carried out on the subjects from February 10th to April 21th, 2018. During the periods, there were 10 sessions in total, with 120 minutes per each session, which was held once a week.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cussion instrument-focused group music therapy program,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ere examined with criteria for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data was analyzed by Mann-Whitney U test and Wilcoxon Matched Pair test, using SPSS 20.0 program.

As a result of Mann-Whitney U test, the depression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or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1$)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subfactor scores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hich are communication, trust, openness, and understandingnes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s < .05$) : the friendliness also exhibi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1$). However, the satisfaction and sensitiveness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s > .05$).

Wilcoxon Matched Pair test showed that the depression scores of the experimental group decreased whereas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ores increased : both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5$). Not only the subfactors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ore, which are satisfaction, communication, trust, openness, and understandingn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ps < .05$) but also the friendliness exhibi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1$). However, the sensitiveness showed insignificant difference ($p > .05$).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ps > .05$) in the depression scores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o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ercussion instrument-focused group music therapy program can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y for the depression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marriage migrant Chinese women

[부록 1] 일반적 배경 설문지

다음 질문은 본인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o표 해주
세요.

1. 본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2. 본인은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1) 중국 2) 필리핀 3) 베트남 4) 기타 ()

3. 본인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대학교 졸업 5) 기타 ()

4. 한국에 언제 왔습니까? (년 월)

5. 본인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세)

6. 본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8. 자녀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자녀가 있다면)

8-1. 몇 명의 자녀가 있습니까? (남 명) (여 명)

8-2. 자녀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적어주세요 (세)

[부록 2 CES-D 우울 검사]

아래의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일주일 동안 본인이 느끼시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o표를 해주세요.

- | | |
|-------------------|-----------------|
| 0. 극히 드물게 (1일 이하) | 1. 가끔(1~2일) |
| 2. 자주(3~4일) | 3. 거의 대부분(5~7일) |

나는 지난 일주일 (7일) 동안	극히 드물게 (1일 이하)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1.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5.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6. 우울했다.				

7. 하는 일 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0. 두려움을 느꼈다.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2. 행복했다.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6. 생활이 즐거웠다.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18. 슬픔을 느꼈다.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부록 3 대인관계 검사]

아래의 문항을 잘 읽으신 후, 해당되는 항목에 o표를 해주세요.

1. 매우 불만족 하는 편이다 2. 다소 불만족 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다소 만족하는 편이다 5.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

질문 내용	매우 불만족 하는 편이다	다소 불만족 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다소 만족 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하는 편이다
1. 나는 인간으로서 나 자신에 대하여__.					
2. 나는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__.					
3.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간으로서 __ 사람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다소 불만족스러운	그저 그런	다소 만족스러운	대단히 만족스러운
4.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서 __ 사람으로 본다.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다소 불만족스러운	그저 그런	다소 만족스러운	대단히 만족스러운
5. 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는 __.	매우 원만하지 못한 편이다	다소 원만하지 못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다소 원만한 편이다	매우 원만한 편이다
6. 나는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이나 욕구를 __.	매우 깨닫지 못하는 편이다	거의 깨닫지 못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다소 깨닫는 편이다	매우 깨닫는 편이다
7. 나는 나 자신의 감정을 __.					

8.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					
9. 나는 다른사람과 의사소통 을 하는 것에 —.	매우 어려 움을 느끼는 편이다	다소 어려 움을 느끼는 편이다	그저 그렇 다	다소 쉽게 느끼는 편이다	매우 쉽게 느끼는 편이다
10.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민감성(감수성)은 —.	매우 느린 편이다	다소 느린편 이다	그저 그렇 다	다소 빠른 편이다	매우 빠른 편이다
11.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온정적인 태도는—.	매우 적은 편이다	다소 적은 편이다	그저 그렇 다	다소 많은 편이다	매우 많은 편이다
12.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표현이나 개방성 정도는 —.					
13.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는 것이 —.	매우 어려운 편이다	다소 어려운 편이다	그저 그렇 다	다소 쉬운 편이다	매우 쉬운 편이다
14.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를 듣는 것이 —.					
15. 나는 다른 사람을 —.	매우 신뢰하 지 않는 편이다	다소 신뢰 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 다	다소 신뢰 하는 편이다	매우 신뢰 하는 편이다
16.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	매우 거리 감을 느끼는 편이다	다소 거리 감을 느끼는 편이다	그저 그렇 다	다소 친근 감을 느끼는 편이다	매우 친근 감을 느끼는 편이다
17.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 자 신감이 —.	매우 적은 편이다	다소 적은 편이다	그저 그렇 다	다소 많은 편이다	매우 많은 편이다

18. 나는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그것을 (건설적으로)___.	매우 못 다루는 편이다	다소 못 다루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다소 잘 다루는 편이다	매우 잘 다루는 편이다
19.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시에 어려움을 ___.	매우 많이 느끼는 편이다	다소 느끼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다소 느끼는 편이다	매우 느끼는 편이다
20. 나는 다른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___.	거의 표현하지 못하는 편이다	다소 표현하지 못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다소 표현하는 편이다	많이 표현하는 편이다
21. 나는 다른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건설적으로)___.					
22. 나는 나의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___.	거의 나누지 못하는 편이다	다소 나누지 못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다소 나누는 편이다	많이 나누는 편이다
23.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한 느낌을 표현 할 때,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정도는 ___.	매우 적은 편이다	다소 적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다소 많은 편이다	매우 많은 편이다
24.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 건설적으로 대하는 나의 정도는 ___.					
25. 나는 다른 사람과 앞으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___.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다	다소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다소 잘 이해하는 편이다	매우 잘 이해하는 편이다